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12월 소매매출 등 주요지표 예상치 하회, 오미크론 및 인플레이 영향
 - 미국 뉴욕 연은 총재, 올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
 - 미국 의회, 방산업체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금지 법안 상정
 - 중국, 춘제(설 연휴) 전후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미국과 합의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 압력에 따라 채권 약세
주가 보합[+0.1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상승[+8bp]
 - **주가:** 미국 S&P 500 지수는 금융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둔화로 보합
 유로 Stoxx 600 지수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위기 등을 반영해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3거래일 연속 약세 이후 자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세
 유로화 가치는 0.4% 하락, 엔화는 보합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을 반영해 상승
 독일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가속화 영향으로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1.0원, +1.2원) 0.1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1/14일	1/13일	전일대비			1/14일	1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62.9	4,659.0	0.0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8%	1.70%	8bp
	유럽	481.16	486.05	-1.01%		독일	-0.05%	-0.09%	4bp
	중국	3,521.3	3,555.3	-0.96%	CDS 5y	한국	21bp	24bp	-3bp
	일본	28,124	28,489	-1.28%		중국	48bp	46bp	2bp
	한국	2,921.9	2,962.1	-1.36%	위험 지표	EMBI+	-	408	-
달러지수	95.17	94.79	0.40%	VIX		19.19	20.31	-5.51%	
유로화	1.1411	1.1455	-0.38%	WTI유		83.82	82.12	2.07%	
환율	엔화	114.19	114.20	0.01%	원자재	구리	442.1	454.6	-2.76%
	위안화	6.3527	6.3598	0.11%		금	1,817.9	1,822.5	-0.25%
	원화	1,187.3	1,187.5	0.0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2월 소매매출 등 주요지표 예상치 하회, 오미크론과 인플레이 영향

- 상무부에 따르면 12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1.9% 감소해 전월(0.2%) 및 예상치(-0.1%)를 크게 하회.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12월 소매매출은 2.5% 감소.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영향
- 12월 산업생산도 전월비 0.1% 줄어 전월(0.7%) 및 예상치(0.2%)를 하회.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 역시 68.8로 전월대비 하락. Richard Curtin 미시간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약 3/4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고 설명
- Pantheon Macroeconomics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 파동이 진정되는 금년 2월 이후부터는 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뉴욕 연은 총재, 올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

- 존 윌리엄스 총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올해 연준(Fed)이 해야 할 일은 현재의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힘
- 또한 미국의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.5%, 내년 전망치를 2.0%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인플레이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의회, 방산업체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금지 법안 상정

- Reuters에 따르면, 공화당 Tom Cotton의원과 민주당 Mark Kelly의원은 자국 방산업체들의 중국 희토류 수입을 2026년까지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상정
- Cotton 의원은 과거 미국의 정책적 선택으로 인해 중국이 세계 희토류 강국으로 발전했다면서, 이번 법안이 미국의 희토류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

■ 미국 연준, 대차대조표 확대 영향으로 재무부 송금액 전년비 193억달러 증가

- 작년 연준은 1078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 중 1074억달러를 재무부에 송금. 코로나 이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(MBS) 보유를 확대하면서 순이익이 증대

■ 영국 11월 GDP,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

- 영국 통계청은 작년 11월 GDP가 전월비 0.9% 증가해 전월(0.1%)과 예상치(0.4%)를 크게 상회했다고 발표. 이는 코로나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'20.2월 대비 0.7% 확대된 규모
- Euler Hermes의 Ana Boata 수석연구원은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충분히 마련되었다면서 금년 2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

■ 중국, 춘제(설 연휴) 전후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미국과 합의

- Reuters에 따르면, 중국이 춘제에 맞춰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원유를 방출하기로 작년 말 미국과 합의.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넘으면 많은 양을, 75달러에 머물면 적은 양을 방출할 계획.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

■ 중국 원유 수입량, 2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

- 중국 해관총서(관세청)는 2021년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5.4% 줄어든 5억1298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01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이라고 밝힘. 이는 정부의 정유기업 규제와 함께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

■ 중국 인민은행, 시중은행의 상업어음금융 취급 한도를 자산의 15% 이내로 설정

- 인민은행은 은행 및 금융회사가 전체 자산의 15%를 초과하는 상업어음금융(Commercial bills financing)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발표. 또한 어음 할인 등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시장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14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수입물가(전월비): -0.2%, 전월(0.7%), 예상치(0.2%)
- 영국 12월 산업생산(전월비): 1.0%, 전월(-0.6%), 예상치(0.2%)
- 중국 12월 무역수지(억달러): 944.6억 달러, 전월(717.2), 예상치(739.5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41, E-mail jgbaek@kcif.or.kr